

1. <보기>의 ㉠~㉤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유형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우리말의 음운 변동은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다.

- ㉠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 ㉡ 첨가: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음운 변동
- ㉢ 탈락: 한 음운이 단순히 없어지는 음운 변동
-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그런데 한 단어 내에서도 둘 이상의 음운 변동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막일→[막닐]→[망닐]

값하다→[갑하다]→[가파다]

	㉠	㉡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2. <보기>의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음운의 변동은 변동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의 음운을 비교하여 크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뉜다. 이 중 한 음운이 수적인 변화 없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인 '교체'가 가장 일반적이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변동이 음운의 교체에 해당한다.

-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 ㉡ 비음화: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 ㉢ 유음화: 'ㄴ'이 유음 앞이나 뒤에서 유음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 ㉣ 경음화: 평음이 일정한 환경에서 경음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 ㉤ 구개음화: 경구개음이 아닌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 앞에서 경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 ① ㉠과 ㉡이 모두 일어나는 예로 '잎만[임만]'을 들 수 있다.
- ② ㉠과 ㉢이 모두 일어나는 예로 '옷도[온또]'를 들 수 있다.
- ③ ㉢과 ㉣이 모두 일어나는 예로 '줄넘기[줄럼끼]'를 들 수 있다.
- ④ ㉠, ㉡, ㉢이 모두 일어나는 예로 '낮빛[남뵤]'을 들 수 있다.
- ⑤ ㉠, ㉢, ㉣이 모두 일어나는 예로 '살살이[싼싸치]'를 들 수 있다.

3. <보기>의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어간의 말음이 단모음인 경우,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될 때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모음의 변동은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는 변동,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는 변동 등으로 나타난다.

- ① '서- + -어'가 [서]로 되는 것은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 ② '가- + -아라'가 [가라]가 되는 것은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 ③ '끄- + -어'가 [꺼]가 되는 것은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 ④ '기- + -어'가 [기여]가 되는 것은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 ⑤ '피- + -어서'가 [퍼:서]가 되는 것은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굳 + 이 → [구지]
- ㉡ 값 + 도 → [갑또]
- ㉢ 팔 + 밥 → [판빳]

- ① ㉠에는 '갈 + 이 → [가치]'에서처럼 자음의 조음 위치가 바뀌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에는 '얏 + 는 → [안는]'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에는 '닭 + 지 → [닥찌]'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과 ㉡에는 '잎 + 지 → [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과 ㉢에는 '덜 + 지 → [덜찌]'에서처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있다.

5. <보기>의 ㄱ~ㅁ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횟수를 바르게 비교한 것은?

< 보 기 >

ㄱ. 읽다[익따]	ㄴ. 색연필[생년필]
ㄷ. 뭇이[목씨]	ㄹ. 샅샅이[산싸치]
ㅁ. 쌓이다[싸이다]	

- ① ㄹ > ㄱ = ㄷ > ㄴ > ㅁ
- ② ㄱ = ㄹ > ㄴ = ㄷ = ㅁ
- ③ ㄴ > ㄹ > ㄱ > ㅁ = ㄷ
- ④ ㄱ = ㄴ = ㄷ > ㄹ > ㅁ
- ⑤ ㄹ > ㄱ = ㄴ > ㄷ = ㅁ

6. <보기>를 참조하여 제시된 단어에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 동화인지 여부를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특정 음운이 인접한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같은 음운으로 바뀌거나, 조음 위치 혹은 조음 방식이 그것과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가리켜 '동화'라고 한다.

- ① '설 + 날[설:랄]'은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ㄹ'과 동일한 소리인 'ㄹ'로 변하기 때문에 동화입니다.
- ② '곁 + 말[곁말]'은 'ㅂ'이 'ㅁ'의 영향을 받아 'ㅁ'과 동일한 소리인 'ㅁ'으로 변하기 때문에 동화입니다.
- ③ '말 + 형[마형]'은 'ㄷ'이 'ㅎ'의 영향을 받아 'ㅎ'과 조음 방식이 같은 'ㅌ'으로 변하기 때문에 동화입니다.
- ④ '쪽 + 문[쪽문]'은 'ㄱ'이 'ㅁ'의 영향을 받아 'ㅁ'과 조음 방식이 같은 'ㅇ'으로 변하기 때문에 동화입니다.
- ⑤ '문 + 눈[문눈]'은 'ㄷ'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ㄴ'과 동일한 소리인 'ㄴ'으로 변하기 때문에 동화입니다.

7.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1: 밥물'의 'ㅂ'이 'ㅁ' 앞에서 [ㅁ]으로 발음되어 [밥물]이 되는 것을 비음화라고 설명하는데, 'ㅂ'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는 없을까? 'ㄴ'도 비음이잖아.

학생 2: '굳는다'의 'ㄷ'은 [ㄴ]이 되고 '녹는다'의 'ㄱ'은 [ㅇ]이 되는 것을 생각해 봐. 자음 체계표에서 아래 부분을 보면 비음화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예측할 수 있어.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조음 방식				
	파열음	ㅂ	ㄷ	ㄱ
	비음	ㅃ	ㄴ	ㅇ

학생 1: 아, 그러니까 파열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을 때, 원래의 (㉠)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 바뀌기 때문이구나.

- | | |
|---------|---------|
| ㉠ | ㉡ |
| ① 파열음 | 비음 |
| ② 입술소리 | 비음 |
| ③ 조음 위치 | 조음 방식 |
| ④ 조음 방식 | 조음 위치 |
| ⑤ 조음 방식 | 여린입천장소리 |

8.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 친 단어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한 음이 다른 음을 닮아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동화라 한다. 동화는 그것이 일어나는 방향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다.

ㄱ. 뒤의 음이 앞의 음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순행 동화
 ㉠ 칼날 → [칼랄](ㄹ + ㄴ → ㄹ + ㄹ)

ㄴ. 앞의 음이 뒤의 음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역행 동화
 ㉡ 국물 → [궁물](ㄱ + ㅁ → ㅇ + ㅁ)

- ① '밥만 잘 먹어.'의 '밥만'에서는 순행 동화가 일어난다.
- ② '문 닫는 중이다.'의 '닫는'에서는 순행 동화가 일어난다.
- ③ '추우니 실내에 있자.'의 '실내'에서는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
- ④ '강릉에 도착했어.'에서의 '강릉'에서는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
- ⑤ '생활에 곤란을 겪었다.'에서의 '곤란'에서는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

9.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선생님, 음운 변동을 공부하다 보니,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아요. ‘발이랑’의 발음은 [반니랑]이 되는데, ‘날날이’의 발음은 왜 [난나니]가 아니라 [난나치]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인서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증거야. 선생님이랑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가) 앞앞[아팍]/[*아팍], 젓어미[저더미]/[*저저미], 흠이불[흔니불]/[*호치불]

(나) 부엌이[부어키]/[*부어기], 무릎이[무르피]/[*무르비], 같이[가치]/[*간니]

선생님: (가)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음절의 끝소리가 바뀌고 있지만, (나)에서는 음절의 끝소리가 바뀌지 않고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고 있지? ‘흠이불’과 ‘같이’를 비교해 보면 (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나)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처럼 뒤에 오는 말이 (㉠)에 따라 ‘발이랑’과 ‘날날이’에 적용되는 음운 변동도 달라진다는 것이지.

*는 잘못된 발음을 나타냄.

- ① 조사나 어미나
- ② 실질 형태소나 문법 형태소나
- ③ 자음이나 모음이나
- ④ 접사나 어근이나
- ⑤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이나

10. <보기>를 참고하여 단어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변동 이전		변동 이후	음운 변동
㉠	XaY	→	XbY	교체
㉡	XY	→	XaY	첨가
㉢	XabY	→	XcY	축약
㉣	XaY	→	XY	탈락

- ① ‘옹고[읍꼬]’는 ㉠,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피어[피여]’은 ㉡,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뜻깊다[뜰깁따]’는 ㉠,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꽃히다[꼬치다]’는 ㉠,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닭도[닥또]’는 ㉡,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11. <보기>의 ㉠, ㉡이 모두 나타나는 말이 아닌 것은?

< 보 기 >

‘의자에 앉고 싶다.’의 ‘앉고’는 두 가지의 음운 변동을 보여 준다. 먼저 ㉠받침 자음 중 일부가 탈락하여 ‘앉고’가 [안고]로 바뀐다. 그리고 ㉡된소리되기로 인해 [안꼬]로 바뀐다.

- ① 영호는 닭장 안을 청소했다.
- ② 농부는 흙과 비료를 섞었다.
- ③ 강아지가 바닥을 얇게 두었다.
- ④ 그가 하는 일은 옹지 않은 일이다.
- ⑤ 이 신발은 품질도 좋고 얇도 싸다.

12. ㉠~㉣의 밑줄 친 말과 동일한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우리말의 음운 현상에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거센소리되기, 된소리 되기 등이 있다.

㉠ 잠깐 사이에 밥물[밤물]이 넘쳐흘렀다.

㉡ 경주는 오랫동안 신라[실라]의 수도였다.

㉢ 동생은 굳이[구지] 자기가 하겠다며 나섰다.

㉣ 삼촌은 그 많던[만턴] 돈을 모두 써 버렸다.

㉤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할 수[할 쑤]가 없다.

- ① ㉠: 논일, 속는다
- ② ㉡: 난로, 잡는다
- ③ ㉢: 붙이다, 굳히다
- ④ ㉣: 좋은, 옹고
- ⑤ ㉤: 만형, 끊기다.

13. 수업 시간에 배운 음운 변동이 표준 발음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기>를 찾아보았다. ㉠~㉣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표준 발음법]

㉠ 제12항 ‘ㅎ(ㄹㅎ, ㄹㅎ)’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ㄱ, ㄷ, ㅈ]으로 발음한다.

㉡ 제17항 받침 ‘ㄷ, ㅌ(ㄷㄷ)’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ㅌ, ㅊ, ㅌ, ㅌ)’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 ① ㉠: 탈락
- ② ㉡: 축약
- ③ ㉢: 유음화
- ④ ㉣: 된소리되기
- ⑤ ㉤: 두음 법칙

14.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ㄱ~ㄴ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제는 기본적으로 발화시와 사건시의 시간적 선후 관계에 따라 파악된다. 발화시란 화자가 말하는 현재 시점을 가리킨다. 사건시란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을 가리킨다. 발화시와 사건시의 선후 관계를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경우, 사건시와 발화시가 같은 경우,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차례대로 과거, 현재, 미래가 된다. 시제는 대체로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등을 통해 나타난다.

ㄱ. 세월이는 앞으로 훌륭하게 자랄 거야.
 ㄴ. 난 세민이와 도서관에 가는 꿈을 꿨어.
 ㄷ. 초등학교 졸업식에 왔던 사람이 누구인지 여전히 기억나네.

- ① ㄱ에는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없다.
- ② ㄱ의 관형사형 어미 '-르'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 임을 나타낸다.
- ③ ㄴ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이 포함되어 있다.
- ④ ㄴ의 관형사형 어미 '-는'은 '꿈'을 꾸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시제임을 나타낸다.
- ⑤ ㄷ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가 모두 쓰였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말하는 이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우리말의 높임법은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나눌 수 있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고,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방인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며,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부사어나 목적어가 나타내는 대상, 즉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아버지: ㉠요즘 조부모 성함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더구나. 영식이는 알고 있니?
 영식: 글썄요. 지난번에 ㉡아버지께서 할머니 성함 알려 주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 이 녀석, 안 되겠다. ㉢인사도 드릴 겸 전화해서 할머니께 여쭙어 보아라.
 영식: 네. 그런데 ㉣지금은 주무실 것 같으니까, 내일 전화 꼭 드릴게요.
 아버지: 그럼, ㉤주말에 뵈러 간다는 말씀도 들려라.

- ① ㉠은 '-구나'를 사용하여 대화의 상대인 '영식'을 낮추고 있다.
- ② ㉡은 '께서'와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성함'을 사용하여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③ ㉢은 '드리다'와 '여쭙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④ ㉣은 '주무시다'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드리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은 '뵈다'와 '말씀'을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16.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우리말의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과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 그리고 대화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으로 나눌 수 있다.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이러한 높임이 복합적으로 실현되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모두 실현된 아래 예문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 알아보자.

(학생이 선생님에게) 어머니께서 선생님께 여쭙 보라고 하셨습니다.

높임법의 분류	높임 상대	높임법을 나타내는 요소
주체 높임	어머니	㉠
객체 높임	㉡	㉢
상대 높임	㉣	㉤

- ① ㉠: 선생님
- ② ㉡: 선생님
- ③ ㉢: 께서, -시-
- ④ ㉣: 께, 여쭙다
- ⑤ ㉤: -시-, 요

17.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을 동작상이라고 한다. 동작상은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진행상은 ㉠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완료상은 ㉡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 완료된 후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 ① ㉠: 가은이가 이모와 그림을 그리고 있다.
- ② ㉡: 지원이는 아침 일찍 학교에 가는 중이다.
- ③ ㉢: 한밤중인데도 윤혁이가 깨어 있다.
- ④ ㉣: 지후는 쉬는 시간에 책을 다 읽었다.
- ⑤ ㉤: 길가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다.

18. <보기 1>은 시제에 관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 메모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1 >

- 시제 :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결정
 - 발화시 : 화자가 말을 하는 시점
 - 사건시 :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
- 시제의 구분
 - 과거 :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선행
 - 현재 : 발화시와 사건시가 동일
 - 미래 :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후행
- 시제의 구현 방법
 -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활용

< 보 기 2 >

㉠ 가은이는 어제 지원이의 생일잔치에 갔다.
 ㉡ 검토할 원고가 이렇게 쌓인 것을 보니 오늘 잠은 다 잤다.
 ㉢ 지후는 작년에 선물로 받은 장난감을 지금도 잘 가지고 논다.

- ① ㉠의 '갔다'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이 사용되었다.
- ② ㉡의 '검토할'은 관형사형 어미 '-르'를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의 '잡다'는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선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의 '쌓인'과 ㉢의 '받은'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⑤ ㉢의 '논다'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19. <보기>의 ㉠~㉣에 들어갈 문장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우리말의 시제는 대체로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문장 ㉠~㉣에 쓰인 '-는-'이나 '(-으)ㄴ'을 다음의 표로 분류해 보자.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현재 시제	㉠	㉡
과거 시제	㉢	㉣

㉠ 영수가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 저쪽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영수이다.
 ㉢ 동생은 자기가 먹은 것을 치우지 않았다.
 ㉣ 아까 내가 만난 친구는 중학교 동창이다.
 ㉤ 영수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한다.

	㉠	㉡	㉢	㉣
①	a, b	-	c	d, e
②	a, b	-	c, d	e
③	a, e	b	-	c, d
④	a, e	b	c	d
⑤	a, e	㉠	-	b, d

20.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 ① 어머니께서 주무신다.
- ②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셨다.
- ③ 선생님, 어머니께서 데리러 오신대요.
- ④ 선생님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학교에 가셨다.
- ⑤ 철수야,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려라.

문법 연습 문제 정답

1	③	2	④	3	⑤	4	④	5	⑤
6	③	7	③	8	⑤	9	②	10	①
11	④	12	③	13	④	14	②	15	④
16	⑤	17	③	18	③	19	③	20	④